



非賣品
 發行兼 卞廷煥
 編輯人 卞相鉉
 主幹 卞最洙
 印刷 卞最洙
 發行處
 卞氏大宗會
 서울·中區乙支路
 4街 315-1
 무광빌딩 712호
 268-8947

宗訓
 爲先
 宗爲
 孫爲
 子爲
 孫爲
 子爲

名심
 이종보는 우리 조상님의
 기록하신 사적이 실렸으므로
 로 서로 돌리어 자세히 읽
 고 소중히 보존하시기 바
 랍니다.

記事와 광고를 보내주세요
 보내실곳·서울·후유치로4가 315-1
 무광빌딩 712호
 전 화·서울 268-1894
 전 화·서울 268-1894

第二回

93宗中夏季研修會 開催

九三年 七月 二三日、二四日

陝川始祖公墓·誠久祠參拜·藏書閣見學

지난 7월 22일 12時 대 구시수성구 상동에서 소 재한 경산대학교 부속한 방병원에서 전국에서 참 석한 수감생은 인원 점검 을 하고 대구시중천회에 서 제공하여 준 점심을 뷔페식으로 맛있게 먹었 다. 일행 50명은 경산대 학교에서 마련해준 대형 버스에 몸을 싣고 2시에 합천군을 출발했다. 영모재를 향해 떠났다. 대구시가지에서 빠져 나 가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 되었으나 88도로를 지나 잘 포장된 시골길을 달 려 영모재에 도착했다. 기상에 보는 수일간 매 일 매일 다른 예보가 발 표되는 여름장마철의 변덕스러운 날씨여서 예측 하기 힘든 일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쾌청한 날씨가 되어서 우리의 행사를 축복하여 주는 것 같았다. 일행은 여장을 풀어서 좋은 영모재 뒷산에 계신 시조공묘소에 올라가서 진주중천회장님께서 한잔 올리고 다같이 연속한 마음으로 재배하고 시조공묘소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창원에서 오산 在權이사님 의 간단한 설명으로 들 었다. 수감생과 함께 참석하 신 종원일행은 다함께 입실하여 영모재에 모셔



요지의 강의를 한시간 하였다. 이어서 대종보 주간인 相鉉이 2시간에 걸쳐 대종보 1호에서부터 급하게 건본인대로 준비한 6호까지 묶어서 철한 자료를 가지고 기사내용을 생략하고 제호와 필자양력 그리고 간단한 요지를 설명하여 주었고 하단에 게재된 종친들의

모든 일행을 마산·창령·청도·대구에서 작별하고 마지막 서울에서 함께 일행 3명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2시였다. 작별행사에 비하여 참석인원이 적었던 것이 흠이었으나 조용하고 알찬 행사였다. 생각의 드니 이는 하늘과 조상이 보살펴 주시어 날씨가 좋았던 덕분이라고 여겨졌다. 와서 들으니 서울에는 종일 비가 왔었다고 한다. 主幹

卞氏서울·京畿地區宗親會 事務所開設하다

지난 9월 1일 卞氏서울경기지구종 친회 사무실을 개설하고 9월 16일 현 판시를 갖은바 있는 서울경기지구종 친회는 오랜 숙원으로 여겨오는 사무 실을 가지게 된 점덕없는 발전이요 다 함께 결속할 일로서 이를 널리 알리고 자축하기 위하여 현판식에 앞서 14일 새로 선임된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참석한 20여명의 이사들은 한결같이 卞氏宗親會의 어려운 운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 종회발전을 위 하여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들후인 16일 고사를 드리고 현판 식을 성대히 갖았는데 50여명이 참석 하여 자축하고 협찬금을 출연하여 3 백여만원의 모았으니 이는 종친회발 전을 위해 새롭게 내어디딘 힘찬 한발 자욱이라 하겠다. 서울경기지구에 산재하고 있는 종 의 수는 어림잡아 4천여호가 되는 게 그 주소록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못 한 점과 같이 아쉬워하며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회원의 주소록을 밝혀서 만 들 자고 일을 모았다. 主幹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4가315-1 무광빌딩 712호실 전 화·02-268-1806
 族譜申請者 접수 丁卯譜(一九八七年度발행) 卞氏大同譜(七卷一집)을 소장하지 못한 분을 위한 재판본급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본 宗報發行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族譜에 누락되신 분도 이 기회에 先系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一九九三.一〇.三〇 大宗會長 卞廷煥

祝 發展

서울형사지방법원 部長判事 卞東杰 (二十八世(四八年生))

耳昌國民學校 校長 卞善燮 (二十九世(二八年生))

卞在日法律事務所 辯護士 卞在日 (三十世(四〇年生)) 서울서초구 서초동 170-914 영포빌딩 301호 전 화·02-541-9934 FAX·02-541-9985 자택·02-581-3377

人事말씀 전국에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釜山高檢長을 끝으로 26간 몸담아 온 검찰직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저 지난 10월 20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 수원, 마산, 대전, 전주 등지에서 고등검사장, 지검장, 법무부장관, 대검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검찰직에 재직시 일찍 여러 어르신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간에 익힌 실무경험과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一九九三.一〇.三〇. 末族 在日 올림

文衡 文肅公 大堤學 春亭

利가 위에 있기 때문인데 옮긴다면 되겠는가」
 (權者天下之所畏也、利者天下之所求也、權利之柄、不可一日而移於下矣、人主至尊也、群臣至卑也、以至衆而服役乎至寡者、蓋以權利之在乎上也、而移之可乎)
 「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에서」 ①仁、②明、③勤을 들어 말하고 있고 「永樂十九年九月日封事」에서 ①保身(己身의 慎獨)、②學問에 힘쓸 것、③世宗이 定宗에게 稱孫해아 옮다는 것、④내림의 기강을 엄히 할 것등을 건의하고 있는데 앞서와大同小異하다.

② 經學思想
 제자인 鄭陟이 쓴 行狀에는 「好學不倦以研窮性理爲務、日遊園籬牧隱陽村諸賢之門、得淵源之正所開益廣所造益深」이라 했다. 學問을 좋아하되 性理를 연구하는 것으로 목표 내지 책(夢周) 牧隱(李穡) 陶隱(李崇仁) 陽村(權近)의 門下에서 공부해 師弟의 誼가 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春亭의 學問의 淵源이 네 先生에게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春亭集 初刊本의 序(權近答)에서 「師事園籬 陶隱 및 我先人 陽村 文忠公이라 했다. 陽村은 牧隱이 빠져 있다. 하여튼 春亭은 高麗末葉 新儒學導入期의 巨儒들에게서 學問을 傳受 받았음이 分明하다. 그는 일찍이 「園籬先生詩藁序」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先生의 학문이 나의 몸과 마음과 性情의 隱微함과 人倫日用的 나 타남에서부터 크게 天地古今의 運變에 이르렀고 가늘게는 昆蟲草木의 名品에까지도 꿰뚫어 놓은 것이 없었다. (中略) 일찍이 成均館에서 經學 講할 때 牧隱先生께서 일컫기를 (이리 말하고 리 말해도 理致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우리 東方性理學의 祖라 할만하다)고 했다」.

(先生爲學、自吾身心性情之微、人倫日用之著、大而天地古今之運變、細而昆蟲草木之名品、無不貫(中略)嘗講經於成均也、牧隱先生稱之曰橫說豎說、無非當理、推爲吾東方性理之學之祖) 東方性理學의 祖인 園籬에게서 배운 春亭이 「以研窮性理爲務」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일찍이 임금(世宗)이 經筵에서 資治通鑑을 읽고자 했을 때 性理書를 講하기를 전한 일도 있다. (年譜 世宗 3年十一月條) 그러나 哀惜하게도 性理에 관한 文字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經學에 대한 意見을 開陳한 글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文集 初刊本 跋文을 쓴 安止(1377-1464)가 「庸學의 旨을 研窮했다.」(研究窮學之旨) 言及을 했고 「殿試對策」(文集 卷8)에서도 中庸을 中心으로 論理를 展開하고 있어 中庸大學에 用力을 集中했다는 것을 미루 짐작할 수 있다.
 大學衍義鑄字跋과 四書五經性理大全跋을 쓴 것을 봐도(文集 卷12) 그의 관심과 用力處를 推測할 수 있다. 앞서 封事에서 「敬을 尙상 學論하고 心法을 敬德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더니와 展覽對策에서 「 또한 敬은 一身의 主宰이고 萬事의 根本이며 聖理의 成始인 듯하다. 成終이라 했습니다. 精一의 功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또한 반드시 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又聞敬者、一身之主宰、萬事之根本、聖學之所以成始而終者也、欲致精一之功者、又必自敬始) 해서 敬을 用功의 中心課題로 浮刻시키고 있다. 아마도 朱子哲學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文集刊行
 「春亭先生文集」이 첫 刊行을 본 것은 世宗 24年(壬戌 1442年)이다. 先生 棄世한지 12년만에 文集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不過 10여년간이었지만 그사이 遺稿가 많이 散逸이 되었던 것으로 初刊本의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 先生의 門人인 鄭陟(1390-1475)이 蒐集·編輯한 것을 역시 門人인 權孟孫이 刊行을 企劃하여 寫本을 만들어 王(世宗)에게 올린 후 允俞를 내리면서 集賢殿 直提學 柳義孫과 著作郎 金瑞陳에게 命해 校閱을 하도록 했고, 이들이 善書者로 하여금 改寫케 해서 正本이 이룩되었다. 鄭陟은 편집과 함께 行狀도 지었는데 당시의 筆畵이 修文殿 大提學이 었다. 字를 殿之號를 整齊·暢麗라 했는 데 晉州人이다. 官이 知中樞院事에 이르렀으며 梁誠之와 함께 東國地圖를 撰進했고 일찍이 兩界地圖도 만든 적이 있었다. 權孟孫(1390-1475)은 56(은) 字를 孝伯 號를 松堂이라 했는데 醴泉人이다. 慶尙道 監司로 있으면서 密陽에서 木版으로 刊行했다. 그는 筆畵이 史曹判書·中樞院副使에 이르렀다. 初刊本은 權陟(1387-1444)가 5)가 序文을 쓰고 安止(1377-1464)가 跋文을 썼는데 權陟은 號를 止齋라 했는데 蓬萊人(은)로 陽村(權近)의 아들이다. 春亭이 陽村의 門人이기에 世宗이 특별히 指命했을 것이 다. 博學한 文章家로 右

贊成에 이르렀고、高麗 史 評찬에 참여하고 鄭麟趾 安止와 더불어 「龍飛御天歌」를 撰進했다. 安止는 號를 阜隱이라 했고 耽津人이다. 筆畵이 藝文館 大提學·領中樞院使에 이르렀고 文章家에다 楷書에 뛰어났다. 그는 春亭이 定宗 太宗의 兩朝實錄을 편찬할 때 同參했고 또 春亭의 外甥이 그의 女婿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王의 指名을 받아 跋을 쓰게 되었다고 述懷하고 있다.
 重刊은 初刊本 刊行後 400여년이 지난 1824年(甲申 純祖 24年)에 居昌의 屏慶書院 儒林이 主動이 되어 刊行했다. 거의 失傳·湮沒된 求하다가 興海 鄉校에서 찾아내어 金是瓚에서 校訂을 依頼해 刊行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純祖 22年에 쓴 金是瓚의 重刊跋가 붙어 있고 沈奎의 重刊序가 있다. 沈奎(1766-1838)는 號를 斗宰 葬下라 했는데 靑松人이다. 文章과 筆法으로 當代 第一人者로 稱한 분으로 筆畵이 領議政에 이르렀다.
 續集은 17代孫 斗宰이 原集에서 빠진 遺稿들을 여러 典籍에서 찾아내고 王朝實錄과 原集 行狀 및 其他 관련있는 文蹟들을 참조해 年譜도 作成해서 1937年 大邱에서 刊行했다.
 原集 12卷 續集 4卷 合 7冊을 合本으로 影印된 것이 近來에 學界에 普及되었음은 多幸한 일이다. 原集은 서울 大學校 奎章閣 藏本이고 續集은 國立中央圖書館藏本을 合本影印한 것이라 한다.

生의 孫인 慶山 大學校 下廷煥總長의 配慮로 該 亭集 原典 輪讀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癸酉(1993年) 7月 出版하게 되었고 이를 小書節 執若齋에서 契機로 儒教學會에서 春 亭集 原典 輪讀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下盛福씨 포철 「技聖」에 선정
 지난 10월 11일 포항 제철 제2부 부장 下盛福씨(52)가 기성(技聖)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포항제철이 75년 우 리 전통사회의 대행수 「大行首」(독일의 「마이스터」에 해당) 맥을 잇는 「기술의 聖人」에게 주는 칭호. 해당 분야 의 기능뿐 아니라 인격 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도 모범이 되어 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우 84년 延鳳鶴씨가 제1 호 기성에 선정된 후 근 10년 동안 배출되지 않았다.
 下盛福씨는 첫물의 불순물을 없애고 용도 에 맞춰 탄소량을 조절 하는 업무를 맡고 있 다.
 64년부터 30년동안 제강작업에만 종사해 동료들이 불려준 별명 이 「鐵의 약제사」이고 「匠人」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라 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 을 강조하는 下盛福씨 는 특히 지난 5년간이나 됐으며 노동부가 발행 하는 제강기능사 1급 자격증과 함께 일본강 관이 발행하는 일본제 강기능사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철강을 제조하는 결 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 는 下盛福씨 그는 30년 동안 3백번짜리 전로 에서 뿔어져 나오는 불 기도 하고 셋노랄기도 한 삼시 1천6백도 보 았다. 「첫물은 온도가 높 아 질수록 붉은 색에서 노 란색으로 다는 은백색 으로 변합니다.
 「첫물은 온도가 높아 질수록 붉은 색에서 노 란색으로 다는 은백색 으로 변합니다.
 「첫물은 온도가 높아 질수록 붉은 색에서 노 란색으로 변하는 것쯤 이야 보통사람도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의 눈에는 붉은색도 같 은 붉은색이 아니고 노 란색도 같은 노란색이 아니다. 온도가 변하면 서 색깔도 달라지므로 미묘하 게 변한다. 첫물의 온 도가 5백도 6백도 1 천도 1천2백도로 올 라가면 전기성의 눈은 색깔이 따라서 바뀌는 것을 짚어낸다.



技聖 下盛福氏

祝 發 展

大韓 武功 受勳 國家有功者

下 敬 甫
 二十六世(三二生)
 서울 노원구 상계동 一九三二
 서울 市 瑞興동 二〇一五
 전 화: 〇二一九三七-三三〇五

代表 下 錫 周
 三十世(六〇年生)
 미진상사·서울 동구 장사동 二〇
 전 화: 〇二二七-一〇六二七
 FAX: 〇二二七-二九四六

忠武地區更生保護委員 下氏忠武市宗親會

會長 下 福 世
 三十世(二七生)
 경남 동서시 인평동 二二一九
 전 화: 〇五五七-一六四一-七五七

下 源 琦
 二十八世(二八年生)
 충남 온양시 모동동 三六〇一-五
 전 화: 〇四一八-四四一-四三三三

代表 下 浩 榮
 三十世(三九生)
 경남 울산시 서흥동 一七七三-二
 전 화: 〇五五七-一四四一-五〇七
 〇五五七-一四三一-三三二

93年度 宗中 夏季研修會 化보 (1)



성구사에서
경남 창원군 진전면 일족들



정환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광경
영모재에서 193. 7. 24)



거창에 있는 첨정공의 유적비에서 (93. 7. 24)



대구의 일행들



진주의 일행들



대구종친회에서 마련해준 점심을
부페식으로 맛있게 먹다 (93. 7. 23)



버스를 타고 달리는 일행들



청도의 일행들



문봉재 준공식날 (93. 8. 15)



시조공 묘소에서 在權이사님의
강씨 할머니 묘소에 대한 설명을 듣는 광경



선산의 일행들



합천의 일행들

DDS·MSD
변치과 의원
DDS·MSD 卞宗昱
卞宗昱 (三十九世(六二三年生))
주소: 부천시 오정동 7-11 원종동 180
목천빌딩 (5층) (3층)
전화: 031-2674-1018
팩스: 031-2674-1018

서울 漢醫院
院長 卞宗昊
卞宗昊 (三十世(五六年生))
주소: 江西路 采谷五洞 九八七-16
전화: 02-1695-1941
팩스: 02-1695-1941

럭키 산업 (주)
Lucky Dow Epoxy Resin 卞宗昊
代表理事 卞鍾曙
卞鍾曙 (三十世(五〇年生))
주소: 경기도 부천시 중부 5-11-11
전화: 031-2678-7696
팩스: 031-2678-7696

太白社印刷所
代表 卞敬道
卞敬道 (三十世(五一年生))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11-11
사무실: 02-561-4710
팩스: 02-561-4710

大興商社
日本 DC CARD MONTOR 韓國總代理店
卞秀東
卞秀東 (二十九世(四一年生))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11
전화: 02-265-4900
팩스: 02-265-1842

祝 發 展

93年度 夏季研修會 化보(2)



장서각 앞에서 목판을 들고 (93. 7. 24)



문봉재를 방문한 일행들 (93. 7. 24)



서울일행들



암구정 선생 유허비 앞에서 정한회장님의 번역을 듣는 광경



하계연수회에 참석한 일행들 (성구사에서)



성구사에서 그 유래를 듣다 (93. 7. 24)



성구사의 내력을 설명하는 萬雙쪽장님



청주종친회 월례회 광경 (93. 9. 7)



거창 장서각 앞에서 (93. 7. 24)



건국대학교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助教授 卞 瑩 煥
二十九世(五五年生)
서울 성동구 모전동 九三一
전화: 〇二四五〇一三五四八
팩스: 〇二四五六一九四三三



西江大學校 理科學科
教授 卞 鍾 瑞
二十六世(三六年生)
주소: 서울 麻浦區 新水洞一
대학: 〇二一七〇五一一八四四一
FAX: 〇二一七〇一一〇九六七
팩스: 〇二一五四九一七六三九



韓國科學技術院
電氣 및 電子工學課
教授 卞 增 男
(四三年生)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三七一一
전화: 〇四一八六九一三四二九
팩스: 〇二一五四五一一三〇〇



제주대학교
教授 卞 忠 圭
二十五世(二九年生)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전화: 〇六四一五四一三四二



忠北大學校 農科大學
煙草學科教授 韓國煙草學會長
農學博士 卞 珠 變
二十九世(三三年生)
大學: 〇四三二一六一一五二一
〇四三二一六一一六〇三
팩스: 〇四三二一六八一六九三二

祝 發 展

忠武公李舜臣의 난중일기 속에서

二十七世 結奎

충무공 李舜臣장군 그 德水李氏 제 세손이며 우리 下門의 외손으로서 임진왜란의 험란한 전란속에 전 해군을 진두지휘 하시면서도 매일 매일 난중일기를 씀에 있어 그 일기속에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심이 담긴 애절한 기록만을 골라 三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특히 내의종간인 흥백공(興伯公) 제 一七세 下存緒(右尹公派)와의 사이에 오고간 협조와 신뢰가 두드러지게 함께 실었으니 그 시대의 역사를 더듬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연재를 마치면서

丙申年 一五九六년 선조 二九(五二세)

一月二十三日 밤 十시에 아들 면과 조카 안이 본영으로부터와 어머니 편안 하시다 는 편지 받으니 기쁘 기한이 없다.

三月二十三日 어머니 편지를 받아보니 안 병하시다 한다.

三月二十七日 아우 여필(萬臣)이 들어와 어머니 편안 하시다 니다 행이다.

四月三十日 어머니 편지가 오다.

五月四日 이날이 어머니 생신인데 현수가 술잔을 올리지 못하니 심란하다.

五月十八日 탐후선의 들어와 어머니 편안 하시다 한다.

六月十四日 아침에 아들 휘, 이수원의 함께 이르러 어머니 편안 하시다 한다.

六月二十二日 할머님 제삿날이다. 공부를 보지 아니하다.

七月二十日 탐후선의 들어와 어머니 편안 하시다 한다.

七月三十日 저녁에 탐후선의 들어와 어머니 편안 하신줄 알다.

八月十二日 오래동안 어머니 안부를 들지 못하니 답답하다.

八月十九日 아들 위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 편안 하신다.

八月二十二日 종일 배를 빨리 저어 밤 十시경 어머니편을 보오니 백발이 무성하신 데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신다. 누를 올 머금고 서로 볼을 고 밤의 새도록 위안 드린다.

八月十三日 아침식사 때 곁에서 모시고 진지를 드시게 하니 대단히 기뻐하시는 기색이다. 늦이파 하 게 하진인을 고하고 본영의 이르렀다 가 작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노를 바삐 젓다.

九月二十七日 일찍 떠나 어머니 편안 하신古音川에 가서 어머니편을 뵈다.

十月一日 어머니편을 뵈오라 가다.

十月三日 어머니편을 뵈시고 일행과 더불어 본영으로 돌아와 종일 즐거히 반기니 다 행이다.

十月八日 어머니편에서 편안 하신다 행이다.

十月九日 종일 어머니편을 모시다.

十月十日 어머니편을 하

四月二十八日 아침 원수 권율이 군관 정승 경을 보내어 문안하고 慶中에 몸이 피곤할 것이니 기운이 회복되는 대로 나오라 고 전한다. 남원 종말석이가 아산에서 와서 어머니 편안 하신다 한다.

五月四日 비. 오늘은 어머니 생신날 슬프고 애를 참을 어찌 참으리던가 울어 일어나 앉아 눈물만 흘릴 뿐

五月五日 맑음. 어머니 편지를 멀리 떠나 장례도 못 지내고 무슨 죄로 이런 보답을 받겠고? 가슴이 찢어질 뿐이다.

五月四日 초계로 가는 길에 권을 원수의 진이 바라보이다.

五月五日 맑음. 아침에 草溪군수가 달려오다.

六月十一日 초저녁에 종사관과 이야기할 때 下興伯(存緒)의 종이 집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함으로 영언이 평안하신 줄을 알겠으나 쓰라린 회포를 어찌 다 말할라! 다만 下興伯이 나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청도로 돌아갔다 하니 참으로 한스럽다. 下興伯이 편지를 써 보내다.

六月十九日 낮에 우영리 下德基 下德章과 놀어 제대한 관리 下慶瓌와 一八歲의 下慶男이와 인사하다.

六月二十日 종일 비. 下瑜 등이 와서 보다.

六月二十一日 저녁에 下存緒가 와서 밤에 이야기하다.

六月二十六日 맑음. 下弘運이 와서 만나다. 아산 종평새가 들어와 어머니 편안 하신다.

七月五日 비. 下存緒가 마흔살이로 가다.

七月六日 맑음. 下存緒가 마흔살이로부터 오다.

七月九日 맑음. 내일 아들 열을 아산으로 내려 보내려고 제사 에 쓸 과일을 싸다. 부모모임을 생각하니 슬퍼져 울면서 밤새 우다.

七月十日 맑음. 아들 열과 下存緒를 보내려고 앉아서 날새기를 기다리다가 정회를 누르지 못하여 통곡하며 보내다.

七月十一日 맑음. 下弘運이 와서 보다.

七月十八日 맑음. 새벽에 下弘運이 와서 전하기를 十六日 새벽에 해군이 대패했다는 통제사 원관과 이 역기 최호 및 여러 장수등 다수인의 해를 입었다고 하니 원통하다 통곡하다.

十月十四日 맑음. 저녁에 사람이 天安에서 왔는데 집안의 편지를 전하다. 차남 열의 편지를 보니 면이 전사한 줄 알았다. 실성공포함을 깨닫지 못하다.

十月十七日 맑음. 새벽에 아들의 복을 입으니 비통함을 어찌 참으랴.

十一月二十三日 아산 집에 편지를 쓰며는 물을 거두지 못하다. 자식을 생각하는 정은 참기 어렵다.

十二月五日 권을(도원수)이 상주라 하여 채식만 하지 말고 고기를 먹고 근력을 차리라고 함.

十二月十日 맑음. 조카 해, 아들 열이 오다.

十一月十九日 새벽 남해 노량 앞바다 마지막 싸움에서 적탄에 원편 겨드랑이를 맞아 순국하다.

十二月五日 권을(도원수)이 상주라 하여 채식만 하지 말고 고기를 먹고 근력을 차리라고 함.

十二月十日 맑음. 조카 해, 아들 열이 오다.

↓ 七페이지에서

대로 사대부 하고 뽕 내니 어찌 알람하지 않느냐. 바지 저고리를 온 통 회개만 하니 이는 실로 상인(賤人)의 차림이요 머리털을 한데 묶어 요 송곳처럼 찌는 것은 공남(南蠻)의 방망이 상투에 불과하니 무에가 예법이니 아니라.

하고 뽕낼 게 있으랴. 옛날 번오기(樊於期)는 사사로운 원망을 갖기 위하여 그 머리 잘리기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호복(胡服) 입기를 부르고 여기저기 앉았거늘 이제 너희들만 대명(大明)을 위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면서 오히려 그 거짓 상투 하나를 아끼며 또 앞으로 장차 말 달리기 칼치기 창찌르기

활동하기. 들팔매 던지기 등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뽕은 소매를 고치지 않고서 제단은 이계 예법이 라 한단 말야. 내가 평생 처음이로 세 가지의 죄를 가르쳤으되 너는 그중 한 가지도 하지 못 하면서 내 편 신임 받 는 신하 라 하니, 소위 신임 받는 신하 가 겨우 이런 말이나 이런놈이 배어 버려야 하겠군.

하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러 버렸다. 이공은 겁짜 놀라 일어나 뒷 들창을 뛰어 나와 달음박질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이를 날 다시금 찾 아 왔으니 허생은 벌써 집을 비우고 어디론지 떠나 버렸다.

□ 연재 끝 □

祝 發 展

韓國產業人力管理公團 國際技能올림픽大會 韓國委員會

事務局長 卞 種 燮

卞 種 燮 (三十九年生)

서울 麻浦區 孔德洞 三〇-一四

직 電 〇二七-一七九四九七

자 電 〇二七-一五三三二九二

자 電 〇三四四-一九〇三三三九一

慶山大學 校 管理 課

課 長 卞 圭 月

卞 圭 月 (三十四年生)

慶北 慶山市 店村洞 山七五

학 校 〇五三-一八一三五五五

FAX 〇五三-一八一三五五五

자 電 〇五三-一六二五七七九

前專責署長 卞 鍾 鐸

卞 鍾 鐸 (三十三年生)

서울 東大門路 新設洞 九一-一〇三

전 話 〇二九-三三六二〇四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支 部

支 部 長 卞 燮 洙

卞 燮 洙 (三十七年生)

전 話 〇四三-二二二二二二

자 電 〇四三-二二二二二二

자 電 〇四三-二二二二二二

卞 尙 洙

卞 尙 洙 (三十五年生)

안양시 안양동 二二二-二二

전 話 〇三四-四七四八七六

始祖公歲一祭獻官一覽表

음 10月初1日 (1963年 ~ 1992年)

祭官年度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大祝	判陳	贊引	贊唱	奉香	奉爐	司尊	奉爵	奠爵	山神獻官	山神祝官
63年	種稷	鳳圭	昌秀	榮候	吉燮	琪榮	樂燮	舜燮	載圭	相範	萬永	東根	洪瑛		
64年	容鈺	華燮	昌秀	榮候	秀弘	榮燮	光燮	秀克	棋洙	東根	鍾卓	鍾萬	彩鈺		
65年	華燮	紀亨	哲	榮候	吉燮	福來	善杓	禮燮	秀模	樂燮	鍾官	鍾洙	仁洙		
66年	榮燮	榮泰	鍾鳳	榮候	慶煥	學成	相卿	燦球	道鈺	保鈺	判圭	在龍	守鈺		
68年	舜燮	亨基	浩淵	榮候	志文	榮燮	相範	詰圭	鍾翰	慶煥	相八	樂燮	善杓		
70年	續根	永穆	榮哲	榮候	允洙	志文	萬植	相殷	玄圭	鍾錄	哲洙	洪圭	杰		
71年	永洙	相欽	榮根	榮候	貴鶴	志文	萬燮	學成	允洙	南圭	樂燮	善杓	華燮		
72年	續根	萬永	榮候	光燮	永煥	志文	萬燮	萬燮	慶煥	宗浩	鍾甲	在奎	在根		
73年	續根	志文	喆圭	吉燮	基鎬	萬燮	官洙	秀弘	秀弘	宗浩	鍾鈺	榮燮	玄圭		
74年	鍾宣	東燮	亨基	萬永	萬燮	鍾文	麟洙	昌洙	熙周	正佑	相範	榮得	永圭		
75年	相殷	再植	判錫	榮弘	榮在	志文	鍾洙	昌洙	華燮	玄圭	相燮	廷安	相八		
76年	相殷	永穆	榮廷圭	萬燮	相鏞	鍾九	應德	秀弘	熙周	在施	最圭	榮益	在元		
77年	吉燮	萬永	東基	萬燮	東燮	法燮	相燮	海燮	熙周	熙周	鍾相	榮燮	相燮		
78年	相穆	杰	榮孟	萬燮	哲洙	新圭	學致	應燮	熙周	鍾相	相鈺	明秀	相燮		
79年	大圭	秀弘	東基	萬燮	哲洙	三洙	相政	華燮	在玉	應燮	成圭	鍾燮	相燮		
80年	敬燮	誠默	宣圭	萬燮	益洙	應德	相燮	華燮	應燮	成圭	鍾燮	致圭	相燮		
81年	在甲	達	榮守	相燮	在塔	應德	永燮	致圭	相玉	相燮	相燮	萬燮	相燮		
82年	益洙	相玉	新圭	應燮	相燮	榮燮	在燮	哲洙	在玉	相燮	相燮	成道	相燮		
83年	續根	基植	應德	敬燮	華燮	萬燮	熙球	熙球	萬燮	善杓	允燮	宗圭	相燮		
84年	在龍	然植	榮守	魯燮	相律	鍾烈	鍾烈	熙球	熙球	應燮	厚燮	元圭	相燮		
85年	益洙	昌秀	元圭	哲洙	相八	致圭	相燮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相燮	相燮		
86年	先春	厚寬	致圭	相燮	榮益	萬燮	萬燮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相燮	相燮		
87年	益洙	海寬	榮守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88年	翼洙	達煥	鍾捧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89年	榮守	心淵	再植	萬燮	正洙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90年	志文	相燮	鍾燮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91年	熙球	熙球	鍾燮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92年	廷燮	仲圭	敬燮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熙球		

文峯齋重建記

(慶南居昌郡加祥面士屏里會村)



우리 고장은 민심이
 淳厚하고 道義를 崇尚
 하며 家門의 뿌리와 傳
 統을 珍重으로 삼고 祖上
 代代로 살아 오고 있
 다. 오늘날 急激한 社
 會變遷과 外來風潮로
 祖上을 섬기는 마음이
 缺如되고 宗族의 觀念
 이 희박해 감에 刻薄한
 世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時代
 가 변한다 할지라도 祖

상 遺德을 敬慕하고
 계승함은 子孫의 道理
 요 義務인 것이다. 이
 곳의 오랜 歷史의 상징
 이요 祖上의 業이 담겨
 있는 文峯齋가 오랜 歲
 月の 흐름에 따라 原狀
 保存이 어렵게 되어 祖
 上에 대한 懷懼한 마음
 金할 길 없으나 重建에
 必要한 예산 確保와 施
 工의 문제로 工事를 못
 하고 있다. 1993
 年(癸酉) 2월에 宗議
 에서 舊建物을 撤去 原
 位置에 擴張 重建하기로
 合議를 보았다. 이 文
 峯齋는 1865年(乙
 丑) 講光堂 泰模公께서
 教育의 重要性을 切感



하시고 後生을 教育하
 기 위해 建立하였다.
 公은 淸純한 선비로 榮
 利를 멀리하고 草野에
 묻혀 學問을 研鑽하고
 教育에 專念하였으며
 學童들에게 늘 不爲非
 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많은 學者들과 交遊하
 면서 經傳을 討論하였
 다. 憲宗 丁未年 8月
 3일에 돌아가시니 享
 年 84세이다.
 詩 決安分
 安分無愧 分수 편안
 히 여겨 마음 부끄
 럼 없고
 忘機身自閑 기회를 잊
 보지 않으니 몸이
 한가롭네
 此心終無已 이 마음 끝
 까지 그만 두지 않
 으면

文肅公春亭諱季良遺稿

春亭集 遺稿

들어 음에 따라 書堂의
 기능이 衰退하여 遺稿
 에 이르렀고 당시 訓長
 은 求哲公으로 허례를
 멀리하고 實질을 崇尚
 하여 소박하고 검소한
 生活을 한 선비였다.
 公은 亡國의 恨을 품고
 1926(丙寅)에 中國
 瀋陽으로 移居하였으며
 後孫이 現在 中國에 살
 고 있다.
 이번 遺稿을 모아 重
 建하게 된 文峯齋는 卜
 圭七社長의 巨金の 喜
 捨와 宗中 여러 분의 精
 성어린 誠心으로 完工
 하였으며 1993年
 (癸酉) 2월에 始工하
 여 同年 8월에 竣工을
 하였다.
 글로 본 本齋 重建에
 監理를 맡아 心血을 傾
 려분과 都便首 卜慶植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문지점
 支店長 卜 龍道
 一九九世(五〇年生)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70
 電話: 〇二一七九-六〇九五
 FAX: 〇二一七九-六〇九五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60
 電話: 〇二一七九-四一九一四

卜 和燮
 主 소: 京畿道 龍仁市 지기동 一九二
 電話: 〇五五-一八九-四七六四
 一九九世(四三年生)

稅務士 卜 祥洙
 一九九世(四八年生)
 忠北 清州市 北馬路 一街 三六二
 電話: 〇四三-一五八一〇四七七
 宅電: 〇四二-一五三一一九三四

稅務士 卜 鍾瑿
 一九九世(三四年生)
 主 소: 清州市 北馬路 一街 一五二
 電話: 〇四三-一三三三三三三〇
 宅電: 〇四二-一六五一七三七

稅務士 卜 鍾瑿
 一九九世(三四年生)
 主 소: 清州市 北馬路 一街 一五二
 電話: 〇四三-一三三三三三三〇
 宅電: 〇四二-一六五一七三七

稅務士 卜 鍾瑿
 一九九世(三四年生)
 主 소: 清州市 北馬路 一街 一五二
 電話: 〇四三-一三三三三三三〇
 宅電: 〇四二-一六五一七三七

代表 卜 明秀
 一九九世(五一年生)
 主 소: 京畿道 龍仁市 龍仁九
 電話: 〇四四-五三三-一三二一四
 宅電: 〇四四-五三八-〇六五九

祝 發 展
 목 화 예 식 장